

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있는 세종대왕 동상의 왼손에는 한글 창제 목적과 사용법에 대해서 적힌 ≪훈민정음≫ 해례본이 들려 있다. 이는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한글 창제임을 상징함과 동시에, 우리글을 읽고 쓰는 모든 지적 활동의 뿌리가 세종대왕의 가르침이란 것을 의미한다. 백성들을 위해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든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려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‘스승의 날’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. 백성들을 위한 ‘참 스승’ 세종대왕,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?

* **신하들의 거센 반대에도**

**한글 창제의 뜻을 세운 세종대왕**

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 교육, 과학, 문화 등의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연합기구 ‘유네스코(UNESCO)’는 문맹 퇴치에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개인을 선정해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국제상인 ‘세종대왕 문해상(King Sejong Literary Prize)’을 수여하고 있다. 매년 9월 8일에 시상식을 열고 상금과 상장, 그리고 세종대왕 메달을 수여한다. 누구나 글을 배워 쓸 수 있도록 ‘훈민정음’을 만들어낸 세종대왕의 업적이 유네스코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.

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익히지 못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여겼다. 실제로 ‘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’란 뜻의 훈민정음의 서문에는 평생 글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잘 드러난다.

당시에는 오직 사대부를 비롯한 지배층들이 한자를 배워 지식을 독점했기 때문에, 권력 역시 이들만의 몫이 됐다.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책을 펼쳐도 백성들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가엾게 여기다가, 온 국민이 쉽게 깨우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한다. 오랜 노력 끝에 1443년에 훈민정음이 탄생했지만, 대신들은 물론 최측근 세력인 집현전 학자들까지도 한글 창제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. 이후 세종대왕은 여러 작업을 통해 한글을 사용해본 뒤 1446년 훈민정음을 세상에 알렸다.

\* 자료 출처 : 국립 한글박물관 소식지 2017년 5월호

( http://www.hangeul.go.kr/user/html/webzine/201705/sub1\_2.html)